

자유기고

내가 만난 '멋진 老人'

김치말이국수 본점 대표 함병현



김순희 주부협회지부대표 내촌면사무장

계산대에서 서서 하루를 보내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게 하는 분이 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 한 분이 "이제 그만 앉아서 계산하셔도 될 것 같은데 힘들게 왜 서서 계시나요?" "손님이 식사를 하실 때 제가 앉아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에 처음엔 차갑게 느껴져 다가갔다. 20년 넘게 한자리 지키며 김치말이국수(대표 함병현)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빼는 우릴 수록 그 맛이 진국에 빠지 버리고 만다. 칠십이 훨씬 넘은 연세에도 틀나는 대로 책을 읽는 모습도. 그분의 경영 노하우가 배어 있는 거 같아 생각지 않은 모습이 멋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조금이라도 주위에 도움이 되고자 장애인들에게도 조금씩 보탬을 주시고 가게에 커피 자판기에 붙여놓은 "여기서 나온 이익금은 내촌중학교 급식비에 후원합니다"라는 문구도 새삼스럽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곳곳에 새겨 있음을 느끼게 한다.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다며 할 수 있으면 계속하시겠다는 그 말씀에도 마음이 훈훈해 짐을 느끼게 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영감도 거절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본인 아닌 다른 곳에 더 요긴하게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직접 보훈처에 가서 거절했다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자식들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게 했다. "하나를 가지면 두개를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마음 비우고 후덕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했다. 각 지역에 4개의 체인점을 두고 계시는 김치 말이 국수(본점 함병현)는 이제 내촌을 대표하는 포천시 자랑할 만한 맛있는 집으로도 선정되었다. 김치를 판매하는 허가증도 개설해서 맛있는 김치를 판매도 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하신다. 외지에서 들어와 이제 안정된 모습이 된 그분의 모습에 오늘도 계산대에서 서서 웃으며 손님 맞는 모습을 보며 환한 웃음도 같이 지어 본다



호사랑의 집 · 모현의료센터 봉사 봉사단체 봉사활동도 119소방대원이 나서

일반적인 죽음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함께 한 시간들을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작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준비하여 떠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호스피스스의 역할을 하는 수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119소방대원들은 전 직원의 마음이 담긴 작은 정성을 전달하고 실내의 대청소 및 마당 잡초제거와 건물 외부 격벽/바닥청소, 건물내 거미줄제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2시에는 신북면 소재 호사랑의 집도 방문해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고통과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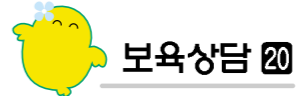


김형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얼마전 몇 나라를 방문하는 중 이스라엘 여행에서 재미있는 풍습을 들었다. 결혼식 때 신부가 그릇 한 개를 밟아 깨트리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 더 큰 기쁨을 맛보는 예식이라고 한다. 기쁨을 고통으로 서 표현하는 의식이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상징(象徴)이기도 하다. 고통이 있으면 그 속에서 깨져 버려서는 안된다. 오히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슬기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이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 새 출발 큰 희망을 안고 낡은 그릇을 깨는 신부처럼 파괴와

희운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신다. 히브리서 11장1~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문의) 031-532-2489



보육상담 20

보육료 반환에 대하여

Q 어린이집 퇴소 시 보육료, 입소료 반환 규정 학기가 시작됩니다. 어린이집을 중간에 그만두게 하고 싶을 때 2학기분을 미리 다 내놓는데 이견 환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12월부터 안 다니면 딱 반을 다닌건데 나머지 반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겨울엔 쉬게 하고 봄에 새로운 곳에 보내고 싶어서요. 교재비 6만원 재료비 7만원 행사비 12만원을 2학기분으로 낸 상태입니다.

A <보육료 반환규정> 보육료의 반환규정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 계산에 의합니다. 계산 방식: 보육료*(실제보육일수/보육가능일수) 예) 3월 2일에 입소하여 15일에 퇴소한 만 5세아의 경우(보육료가 15만8천원이라면) 15만8천원*12/26=7만2천원

<입소료 반환규정> 입소후 1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제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입소료 반환규정에

의하여 시설장과 협의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육료에는 기본적인 교재교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추가 수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는 특화된 보육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별도의 재료비, 교재교구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어린이집과 부모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재료비 교재비사용 용도를 질의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해당 잔액은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육료는 학기 분을 일시불로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마다 선불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06.11.23)



인경준 중앙특수어린이집 원장 (031-534-0277)

특별기고

관계의 건축 - 자연 건축의 미(美)



장덕철

(포천 노인전문병원 한방원장)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일까? 흔히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진선미(眞善美)를 같이 말하는 것일까. 왜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말하면 될 것을 진실함과 선함을 같이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름다움이란 다른 개념과 전혀 관계없이 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선함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관계 속에서만 존재가 가능하듯이, 아름다움이란 개념도 관계 속에서만 존재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왔다. 거대한 신전과 궁전으로부터 지리도도 가난한 사람

들의 바람막이까지. 고대와 중세의 거대한 신전과 궁전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러한 <권위 건축>은 돈과 권력을 지닌 자가 돈과 권력이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뼈와 피를 착취해서 지어진 건축이다. 힘없는 사람들의 땀조각과 핏물이 스며있는 건축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이란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한다. 거대한 신전과 궁전이 아름다우려면 그 <뒷얘기>까지 아름다워야 한다. 목적과 수단과 방법까지도 아름다워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황제의 궁전은 죽은 자와 죽은 자의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워 버리고 싶은 저주의 대상이다. 왜 그럴까. 그 건축물의 목적과 수단과 방법에는 진실하고 선함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지배자들의 욕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요즘의 건축은 어떠한?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버린 세상에, 가장 큰 상품이 <집>이다. 집을 사고 팔고 이익을 남기는 투기의 물건으로 만들어버린

천민자본주의 세상에서 뒷얘기까지 아름다운 건축이 지어질 수 있을까. 단 1퍼센트의 가능성도 없다. 이익을 남겨야하는 상품에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진선미한 건축이란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연건축은 단순히 휴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자연건축은 새로운 가치관의 선택이고 삶의 방식이다. 그러한 가치관을 지니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건축이다. 자연 건축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축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생물들, 그리고 자연을 같이 생각하는 건축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건축이다. 즉, 짓는 이들의 마음이 진실하고 선할 때, 다른 존재를 사랑할 때 그때서야 아름다운 건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연 건축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지, 단순히 휴집이 아니다. 필자연락처 : 011-628-4214

자유기고

축석마을 이웃 어려움 1匙一飯 도움



이중실

주부협회지부대표

매섭게 춥기만 하던 겨울 날씨가 풀리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밖의 날씨는 차갑기만 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얼어서 움츠러지는 어깨를 온난화 현상도 해결하지 못했던 추운 겨울날을 무색케 한 우리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훈훈하기만 합니다. 얼마전 일요일 해가 서늘하게 저물어 갈 무렵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나서 불더미 속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행히도 목숨만 건진 이웃에게 우리 마을사람들은 작은 보탬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가운데서도 마음만은 아직까지 얼어붙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추운 날씨에 그런 재해를 당해 얼마나 상심이 클까 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마을 주민들께서는 마음을 합하여 작은 보탬이라도 주었으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마을 온 주



서민극 시리즈 3탄 연극 "땅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



서민극으로 국내1호 석사학위를 취득한 포천의 연극인 이회용씨가 서민극시리즈 3탄 "땅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를 3월 25일 일요일 오후 4시 대진대학교 예술관 무대에 올린다. 그동안 두 편의 서민극으로 포천시민의 마음을 적시게 했던 연출가 이회용씨는, 이 연극을 '감동과 해학 그리고 익살이 잘 버무려져 관객에게 웃음을 심어주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저마다의 애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연극'이라고 말한다. 제25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작품이므로 무료공연입니다.



- 일시 : 2007년 3월 25일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 대진대학교 예술관 소극장
주최 : 포천연극협회, 극단한내
후원 :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신문,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대진대학교연극영화학부, 작은거인산악회, 포천문인협회, 포천무용협회, 포천국악협회, 포천시자원봉사센터, 한내울포럼

- 스텝
작가: 김태수
기획·연출: 이회용
조연출: 이규연
무대감독: 한대관
조명디자인: 남중우
조명 OP: 고아라
음향 OP: 박경미
분장: 최정아
무대디자인: 라유경
무대: 박초권
무대: 조윤경
소품: 권아름
출연
만 배: 이창희, 준호: 이현철, 상우: 임태순, 진숙: 신숙이, 만 두: 김승덕
교행이: 우경한, 참치: 이문학, 손님 1: 정 지두, 손님 2: 백 흥원, 손님 3: 김영관